

《百家公案》, 그 ‘일그러진 욕망’에 관하여

- ‘남편 죽이기 욕망’, 그리고 그녀들의 완전 범죄 -

高淑姬*

<目 次>

1. 들어가며
2. 공안소설과 《백가공안》에 관하여
3. 《백가공안》의 ‘남편 죽이기 욕망’, 그리고 그녀들의 완전범죄
4. 나오며

1. 들어가며

현대에 들어와 ‘욕망’은 철학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철학계에서는 ‘욕망’을 결핍과 무의식, 생산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그 개념 정립을 위해 치열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Paul Charles Aymard Sartre, 1905-1980)¹⁾는 ‘욕망’이라는 개념을 철학에 도입하면서 플라톤 이래 전통 철학과 동일하게 ‘욕망’을 ‘결핍’으로 보았으며, 반이성주의를 기치로 내건 구조주의에서는 ‘욕망’을 ‘의식’의 속성이 아닌 ‘무의식’으로 간주했다.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Jacques-Marie-Émile Lacan, 1901-1981)²⁾은 욕망의 결핍을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존재의 결핍으로 보았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인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³⁾와 가타리(Félix Guattari)⁴⁾는 욕망을 결핍의 관점이 아닌 생산적 개념

* 대진대 중국학과 강사

1) 프랑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이다.

2)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로,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3)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로 생전에 철학, 문학, 영화, 예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작을

으로 보는 획기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욕망은 어떤 결핍내지 부족한 것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려는 무의식적 의지라고 본 것이다.⁵⁾

이와 같이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욕망'이라는 단어와 개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욕망'은 철학 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⁶⁾

특히 소설의 주요 테마 중의 하나가 바로 '욕망'이다. 중국의 공안소설은 인간 욕망의 분출로 야기된 사건을 텍스트화한 '범죄소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최초의 短篇公案小說專集인 《백가공안》은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그 해결을 중심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인간의 집착적 '욕망'으로 인해 발생된다. 그리고 인간의 그릇된 '욕망' 표출은 사회기초 질서와 평화에 치명타를 가한다. 《백가공안》에는 다양한 양상의 일그러진 인간 욕망 표출로 범죄가 발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관부가 개입하면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안소설의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백가공안》에 나타난 일그러진 여러 인간 욕망 중에서 아내의 '남편 죽이기 욕망'과 완전 범죄를 꿈꾼 그녀들의 잔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남겼다. 미셸 푸코는 그에 대해 "언젠가 들뢰즈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4) 처음에는 라캉이 결성한 파리 프로이트 학파에 참여하였으나 정신분석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인식하고 반 라캉적 경향을 드러냈다. 가타리는 들뢰즈와 새로운 이론 구성을 위해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을 했고, 역사유물론적인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프로이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학인 욕망의 정치학을 제기했다.

5) 남경태, 《개념어사전》, 들녘, 2008, pp.289-290 참조.

6) 현대사회에서 '욕망'은 정치, 경제, 철학, 사회, 문학, 문화 등 다방면에서 주요 코드(code)로 작용한다. 특히 다방면에 걸친 소비적 측면에서 '욕망'은 대중의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2. 공안소설과 《백가공안》에 관하여

'공안'은 說話四家 중 하나인 '說公案'에서 그 어휘가 출현했고, 관부의 공문서나 판결문, 그리고 민사사건·형사사건을 포함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공안소설'이다.

공안소설은 범죄사건으로 인한 소송을 근간으로, 청관(판관)⁷⁾이 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판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중국공안소설사를 들여다보면, 공안소설은 독립적인 소설 유형이 아니라 여러 필기소설과 문언소설, 화본소설 속에 비독립적 형태로 산견되어 왔다. 공안소설이 공안관련 이야기만을 다루는 전문적인 소설집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바로 명나라 萬曆시기이다. 이 시기에 '공안의 명칭을 내건 公案小說專集들이 등장하여 유행하기에 이르렀다.⁸⁾ 《百家公案》, 《廉明公案》, 《諸司公案》, 《新民公案》, 《海剛峰公案》, 《詳刑公案》, 《律條公案》, 《法林灼見》, 《明鏡公案》, 《詳情公案》, 《神明公案》, 《龍圖公案》 등의 12종이 이에 해당된다. 각 편 각 회가 개별성을 띠며, 사건 성질에 따라 내용을 분류했고, 각 사건은 크게 사건발생 상황과 사건해결 과정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12종의 공안소설 작품집은 문장이 조잡하고 간단하며 편집 방식도 유사하다. 내용상 미신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으며, 공안소설집들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문인들이나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7) 청관은 '公正廉潔한 관리'를 말한다. '公正'은 '공평하고 정직하여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廉潔'은 '정치를 함에 청렴하고 관리로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으며, 품행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청관은 법치보다 인치를 우위에 둔 중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서 출현했으며, 봉건통치계급과 일반민중의 염원이 동시에 투영된 대상이다.

8) 黃岩柏은 《중국공안소설사》에서 晚明을 공안소설의 최대 번영기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시기를 공안소설에 있어서 '三足鼎立'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공안단편소설전집의 출현, 통속소설 중 散篇公案, 문언단편공안소설의 3대 유형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중국공안소설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공안단편소설전집들은 일률적으로 《××공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모두 12권에 달하며 각 권에 들어 있는 고사들을 합하면 천개나 되어 당시 사회에 '공안 열풍'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黃岩柏, 《中國公案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1991, pp.136-137 참조.

못했다.

명대에 공안소설전집이 대거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래 명 중엽부터 출판업이 크게 성행하여 소설의 발전과 전파를 촉진시키는데, 공안소설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소설과 출판은 상호불가분의 관련성이 있어서 소설의 번영은 출판업을 흥성시키고, 출판의 성행은 소설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書坊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책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일을 했다. 書坊主들은 당시 공안소설이 서민들의 관심을 끌자,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과 백성들에게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인들을 고용하여 공안소설집을 편집하게 되었다.

《백가공안》은 중국의 대표적 공안소설로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첫 번째 공안소설전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체 내용상 송대의 諫官이었고, 후대에는 청관 내지 판관으로 널리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포공을 중심인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가공안》은 《용도공안》과 동일성을 지닌다. 두 작품집은 이전 시기 민간 전설이나 문학양식을 통해 전해지던 포공고사를 흡수하여 포공을 사건 해결의 일관된 주체로 삼아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범죄 사건과 그 해결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사회범죄 소설집'이라 할 수 있다.

《백가공안》은 포공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가 100여 개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그의 사건 처리 능력 등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백가공안》의 판본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일본 名古屋 蓬左文庫에 소장된 朱氏興畊堂의 만력22년(1594) 판본으로, 《新刊京本通俗演義增像包龍圖判百家公案》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 소장되어 있다가, 조선의 독립 후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온 金陵萬卷樓의 만력25년(1597) 판본 《新鐫全像包孝肅公百家公案演義》이다. 전자는 全本이고, 후자는 殘本이다.

여경당본 《백가공안》의 편집자는 安遇時이며, 생평은 자세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명대 만력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錢塘散人 안우시로 알려져 있다. 그가 《백가공안》을 편집할 당시는 講史演義가 유행하는 시기였다. 그는 포공의 사건 판결

고사를 제재로 어느 정도의 창작력을 발휘했으나, 편찬 방식에 있어서는 당시의 장사연의와 별 차이 없이 여러 종류의 작품을 정리하는 식의 편집이었다.

《백가공안》은 화본, 잡극, 민간전설, 설장사화의 포공관련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전체 100편의 이야기는 回로 나뉘어져 있고, 매 편의 이야기는 독립적이다. 《백가공안》은 '공안'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등장한 최초의 공안소설전집으로, 당시 여러 공안류 소설집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백가공안》의 내용을 보면, 작품에 수록된 고사들은 모두 사회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그를 통해 사회상을 반영한다. 일그러진 인간 욕망으로 사회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작품 전체의 일관된 사건 추리자 포공은 소송을 심리하며 범죄사건의 수사과 추리과정을 통해 명탐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중국의 '셜록홈즈'⁹⁾라 칭송될 정도로¹⁰⁾ 사건 심리자로서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포공은 전체작품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사건 속에서 포공은 명탐정 셜록홈즈처럼 관련 단서를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인과적 사건을 재현하고, 직접 범죄수사에 참여하거나 미복

9) 아서 코난 도일(1859-1930)이 창조한 전설적인 명탐정이자 탐정의 대명사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인 자신의 친구를 모델로 셜록홈즈를 창조했다고 한다. 홈즈는 범죄 수사와 추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고, 독특한 캐릭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의 탐정이라 할 수 있는 포공 역시 여러 나라에서 신비롭고 매력적인 인물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포공은 독특한 정신적 품모로 생전에 많은 이의 관심대상이었고, 사후에도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 예로 각지에 세워진 포공의 사당, 무덤, 碑林등을 들 수 있다. 그의 고향인 합비와 관직 생활을 했던 개봉에 세워진 사당이 대표적이다. 합비에 있는 포공의 사당은 상당히 소박하고 단아하여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합비의 사당은 태평천국의 난 이후 李鴻章이 사비를 들여 중건한 것이다. 사당 안에는 포공의 숭고한 정신을 칭송하는 내용을 다룬 편액, 비문, 시사 등이 걸려있으며, 사당 정전에는 높이가 3미터에 달하는 포공상이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포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밀랍인형으로 재현한 곳도 있으며, 廉泉井이라는 우물도 있다. 게다가 포공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연상되는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가 진열되어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합비에는 포공의 사당 외에 포공의 묘와 淸風閣이 있다. 포공의 묘에는 그의 부인과 자손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 청풍각은 포공 탄생 1천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송의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높이가 42미터에 달하는 9층 누각이다. 개봉에 있는 포공의 사당은 개혁개방이후 1987년에 흥건한 것이어서 합비의 사당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포공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정신을 배우려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의 사당을 찾고 있다.

10) 胡適은 《三俠五義序》에서 포공을 중국의 셜록홈즈라고 칭송했다. 《胡適文存》三集, 《三俠五義序》, 上海書店, 1930년판, 영인본: 한국학술정보센터, 1994, p.662.

차림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한다.¹¹⁾ 사건해결에 있어서 계시적·결정적 역할을 하는 미신적이며 초현실적 요소가 등장하여 작품의 흥미유발에 기여하기도 한다.¹²⁾ 이는 서구 추리·범죄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공안소설만의 독특한 경향이다.¹³⁾ 이처럼 '셜록홈즈'에 비견될 정도로 극찬 받았던 포공은 역사상 실존 인물로서 그 만의 독특성과 일반민중의 기대감으로 문학의 영역에 진입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서보다 문학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져 왔다. 포공은 송대의 관료 중에서 그 지위와 명성이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사후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주로 일반 백성의 입과 예술가들의 형상화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즉, 포공은 송원대 화본과 戲文, 雜劇에서부터 명청대 詞話와 傳奇, 소설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문학작품 속에 등장함으로써 독특한 문화현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¹⁴⁾

-
- 11) 포공은 범죄사건에 의한 소송이 발생하면 사건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식 탐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고소장과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정확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 정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사건 해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의 범인에 대한 심리전과 심문방법, 예리한 관찰력, 현장 수사, 트릭을 사용한 함정수사 등은 오로지 그의 두뇌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사건해결 방법들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그는 일정 정도의 논리성을 띤 추리를 진행하여 범인과 범행에 대한 난해한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간다.
- 12) 《백가공안》에는 꿈, 원혼, 기도, 수수께끼 시 풀이 등의 초현실적 양상들이 등장하여 포공의 범죄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이러한 요소들의 등장은 포공의 초월적 능력을 반영하고, 그의 신비성을 부각시킨다. 소위 '人判'이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건 추리방법과 상반된 경향의 초현실적 요소들은 비현실성이 강하나, 소설적 묘미는 풍부하다.
- 13) 과학적 조사와 이성적 판단, 논리력은 서구 탐정 캐릭터들의 필수 요건이다. 반면, 중국 공안소설 속 탐정 캐릭터들은 신비로우며 미신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의 활용을 통해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측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중국 공안소설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14) 포공은 公理와 正義의 상징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反腐倡廉의 정치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정신은 대중매체를 통해 형상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만들어진 236집에 달하는 TV연속극 〈包青天〉은 출시 당시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작품은 한국에 수입 방영되기도 했다. 일설에 의하면 〈包青天〉의 방영 시간대가 되면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드물었다고 할 정도였다. 대륙에서도 포공의 인기도에 힘입어 〈少年包青天〉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포공이라는 역사인물은 사후 민간전설과 문학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존재했으며, 그의 정신적 풍모는 고사의 재미와 어우러져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하나의 문화현상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3. 《백가공안》의 '남편 죽이기 욕망', 그리고 그녀들의 완전 범죄

《백가공안》은 사회범죄 소설집이다.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각양각색의 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중국식 탐정 포공¹⁵⁾이 그 중심에 선다. 그리고 포공은 사건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다.

중국 공안소설과 서구 추리(범죄)소설의 주요 테마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은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이다. 이러한 비뚤어진 욕망은 사회 기초 질서를 와해시켜 불안감을 조성한다.

욕망은 인간 영혼의 거울로,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 존재하며 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삶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백가공안》에는 봉건 유교사회라는 커다란 틀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억압 받는 인간들의 욕망이 표출되어 있다. 금지된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인간들은 그들의 욕망분출을 통해 사회범죄를 일으킨다.¹⁶⁾

본고에서는 작품에 표현된 다양한 '일그러진 욕망' 중에서 강렬한 성에 대한 욕망으로 발생되는 아내의 '남편 죽이기 욕망'에 시선을 던지려고 한다. 해당 작품은 제76회 〈오씨 남편의 분명치 않은 死因을 과해치다(判阿吳夫死不明)〉와 제77

15) 중국식 탐정이라 말할 수 있는 포공의 《백가공안》에서의 정체성은 판관이다. 판관은 나라에서 임명하는 관리로, 범죄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행정책임과 치안책임을 동시에 맡고 있어서 서구 추리소설 속 탐정과 차이를 보이며 훨씬 다양한 역할 임무를 부여 받았다.

16) 이러한 범죄사건의 만연은 당시 사회와 관련이 있다. 명대 사회를 조명해 볼 때, 명 중기는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역사시기이다. 이 시기는 150여 년의 안정기와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경제는 나날이 안정되었다. 각종 사회문제와 모순이 발생했으나, 표면적으로 전체 사회, 특히 도시에는 번영의 국면과 부유하고 태평스런 분위기가 출현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도덕관념도 거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사치를 다투고 기이한 것에 현혹되며, 풍류와 방종이 대다수 사람들의 추구대상이 되었다. 이런 풍조는 명초의 순박하고 검소하며 규범을 따르고 화려함을 숭상하지 않던 풍모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풍조와 도덕관념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人民文學出版社, 2000, p.71.

회 〈양씨의 전남편 모살사건을 파해치다(判阿楊謀殺前夫)〉에 해당되는 두 편이다. 표면적으로는 두 편의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작품이다. 제76회 말미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는 지나치게 음란하여 남편을 모살한 여인들이 경계 삼을 만하다. 단지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번째 억울한 사건이 밝혀지니 다음 회를 보시라.¹⁷⁾

이를 통해 두 작품은 별개가 아니며 회만 나뉘어졌을 뿐 연관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남편 죽이기 욕망'을 드러내어 완전범죄를 저지르는 아내들은 오씨와 양씨이다. 그녀들은 상당히 음란하고 잔혹한 여성들이다.

작품 소개와 분석에 앞서 중국 역사와 문학 작품에 표출된 '남편 죽이기 욕망'을 짚어보도록 한다.

이러한 '일그러진 욕망'의 주체가 되는 여성들은 다수에 달한다. 중국 역사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夏나라 桀의 여인 妹喜, 殷나라 紂의 妲己, 周나라 幽王의 褒姒가 있다. 그녀들은 실제 남편(왕)에게 살인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남편(왕)과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녀들은 음란한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가혹한 형벌을 만들어 낸 악독한 여성의 표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진시황의 모친인 조희, 한나라 성제의 조비연, 서진 혜제의 가남풍 역시 지나치게 색을 탐했던 음란한 여성들이었고, 가혹하기 까지 했다. 한고조 유방의 여태후¹⁸⁾와 당나라 측천무후¹⁹⁾, 청나라 서태후는 중국 역사에서 여걸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녀들 역시 악독하고 가혹한 면모를 드러냈다. 이들의 과도한 욕망 역시 '남편 죽이기'의 흔적을 보여준다.

음란하고 악독한 여성의 모델을 다수 제시한 문학작품으로는 《수호전》이 대

17) 此可以爲貪淫謀殺親夫者之戒。只因此件公案，又判出二款冤枉事來，下回便見。

18) 여태후는 개국공신 韓信을 토사구팽하고 한고조의 총희였던 척부인을 人籠로 만드는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19) 측천무후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남편 죽이기 욕망과 자식 죽이기 욕망으로 발전되었다.

《百家公案》. 그 '일그러진 욕망'에 관하여 281

표적이다. 무대의 아내 반금련, 송강의 첩 염과석, 양웅의 처 반교운, 노준의 처 가씨 등은 지나친 음탕함으로 과감하게 '남편 죽이기 욕망'을 품었다. 반금련의 경우 '남편 죽이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염과석은 역으로 남편에게 죽임을 당했다. 반교운과 가씨 역시 '남편에 대한 배신(죽이기)의 욕망'을 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그녀들의 공통된 특징은 뛰어난 자색과 음란함, 악독함이다.²⁰⁾

이외에 《수호전》에는 호삼랑, 고대수, 손이랑 같은 재주와 기개를 갖춘 용맹무쌍한 여성들도 등장하여 음란하고 악독한 여성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상의 역사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음란하고 악독한 여성들은 정도와 목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남편(자식) 죽이기 욕망'을 품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장악이라는 목적도 일부 드러나지만, 대개는 지나친 음란함으로 인해 '남편 죽이기 욕망'이 표출되었다.

《백가공안》 제76회 <오씨 남편의 분명치 않은 死因을 파헤치다(判阿吳夫死不明)>와 제77회 <양씨의 전남편 모살사건을 파헤치다(判阿楊謀殺前夫)>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외간남자에 대한 성적 집착이 '남편 죽이기 욕망'을 형성하고, 그 '일그러진 욕망'을 분출시켜서 완전범죄를 꿈꾸었다.

우선 두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

제76회 <오씨 남편의 분명치 않은 死因을 파헤치다(判阿吳夫死不明)>

포공이 개봉에서 관직생활을 할 때 발생한 사건이다. 上元節에 성황묘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다가 어느 골목 어귀를 지나게 되었다. 이 때 한 여인의 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소리에는 애절함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그 여인을 불러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병사하여 우는 것이라 했다. 그녀의 얼굴을 살펴

20) '미색'과 '음란함'과 '악독함'은 '음부'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영웅호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전소설에서 미색이 빼어난 여자는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여자는 악한 뜻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호전》에서는 이를 두고 "음란함과 악독함은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했다. 이는 비단 《수호전》만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일반 대중이 공통적으로 가진 관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묘사된 음부들이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중국인들이 가진 두 가지 전통 관념의 논리적인 결론이자 형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만 가지 악 중에 음란함이 으뜸이다'와 '가장 독한 것은 부녀자의 마음이다'이다. 易中天 지음, 홍광훈 옮김, 《이중텐 교수의 중국 남녀 엿보기》, 에버리치출판스, 2008, pp.104-105.

보니 얇게 화장기가 있었다. 포공은 꼭소리에 애절함이 없고 슬픈 듯 기쁜 듯한 감정이 실려 있었으며 상복을 입을 여인이 화장을 한 것을 보고 그녀 남편의 죽음에는 연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곧 陳尙에게 무덤으로 가서 관 뚜껑을 열어 검사하게 했는데, 시체에서 어떤 이상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포공은 진상에게 사실을 은폐하려한다고 소리치며 삼일 내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라고 했다. 진상은 집으로 돌아와 고민을 했다. 이때 아내 楊氏가 어떤 사람이 콧속에 쇠못을 넣어 살인을 했다는 말을 하며 시체의 콧속을 살펴보라고 했다. 진상이 아내 말에 따라 시체의 콧속을 들여다보니, 두 개의 쇠못이 박혀 있었다. 보고를 받은 포공은 여인을 심문했고, 그녀는 자신의 간통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을까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포공은 여인을 조리돌리고 참수했으며 그녀와 간통한 도살업자는 충군에 처했다.

제77회 〈양씨의 전 남편 모살사건을 파헤치다(判阿楊謀殺前夫)〉

포공은 사건을 해결한 후 진상에게 누가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었는지 물었다. 진상은 아내 양씨의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공은 양씨를 불러 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상과의 결혼이 초혼인지 재혼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그녀가 재혼이라고 하자 전 남편의 이름과 성, 또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양씨는 사색이 되더니 전 남편은 정신이상으로 죽었다고 대답했다. 포공은 王亮에게 양씨를 전 남편 무덤에 데려가 검사하게 했다. 양씨는 자신의 죄상이 발각될까봐 다른 묘를 전 남편의 묘라고 했다. 왕량이 검시를 해보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양씨를 꾸짖고 진짜 묘를 알려준 후, 바람으로 변해서 사라져 버렸다. 과연 시신의 코를 보니 쇠못이 두 개가 박혀있었다. 포공은 양씨를 조리돌리고 참수했다.

이 두 작품은 편폭이 짧은 편이어서 범죄의 정황이나 그 방법이 자세하지는 않다. 그러나 '남편 죽이기 욕망'의 형성과 범죄를 통한 욕망의 분출, 악독하고 잔혹한 범죄방법, 범죄사실 은폐를 위한 거짓 행위 등은 읽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작품 속에서 오씨와 양씨의 '남편 죽이기 욕망'은 외도, 즉 외간 남자에 대한 성적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외도는 소위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적관계를 말한다.

전통사회의 결혼 풍속과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감정은 차치하고 중매

인을 통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의 속성이었다. 따라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남녀간의 결혼은 집안 간의 이익을 확대하고 대를 잇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금지된 성에 대한 욕망' 혹은 감정 없는 결혼에 대한 일탈행위로 남녀의 외도가 등장했다. 남성의 경우 외도를 누릴 수 있는 공인된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는 바로 기생들과의 교류, 첩을 들일 수 있는 권한이다. 첩을 들이는 것은 남성의 자발성이나 집안 혹은 아내의 권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성은 三從之道, 七去之惡 등의 윤리적·도덕적 얽매임이 있었기에 외도는 꿈꿀 수도 꿈꾸어서도 안 되는 금기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외도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현실보다 좀 더 자유롭고 과감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설 속에는 이런 금기를 위반하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녀들의 외도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남편 죽이기 욕망'이 생겨나고 사회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남성이 외도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남성이 자신의 외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위 장애물이 되는 아내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외도에 대한 공인된 권력이 있어서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여성은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발각될 우려가 있게 되면, 사회적 매장이나 지탄을 벗어나기 위해 극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편 죽이기 욕망'으로 이는 사회범죄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일그러진 욕망'에 의해 발생하는 '아내의 남편 죽이기'라는 사회범죄를 단순히 소설속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으며, 이런 현상이 사회 속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백가공안》의 오씨와 양씨는 '남편 죽이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

진상은 집으로 돌아와 걱정을 하느라 양미간을 찌푸리고 근심이 얼굴에 가득했다. 아내 양씨가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걱정을 해요?" 진상은 모든 사실을 알려 주었다. 양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신의 콧속을 살펴봤나요?" 진상이 말했다. "그 사람은 원래 내가 염을 했는데, 콧속은 들여다보지 못했소." 양씨가 말했다. "어떤

이가 사람의 콧속에 쇠못을 박아서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곳을 살펴봐요.” 진상 역시 약간 의심스러워 하다가 아내의 말에 따라 다시 한차례 살펴보러 갔다. 과연 유십이의 콧속에 쇠못 두 개가 박혀있었는데, 뒤통수의 머리 카락이 덮여있는 곳에서 박아 넣은 것이었다. 곧 그 쇠못을 뽑아서 포공에게 바치고 사실대로 보고했다. 포공은 오씨를 심문했으며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형들을 가져오자 도살업자 장씨와 간통을 하여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을 모살하게 되었다고 모든 내막을 자백했다.²¹⁾ 76회

오씨와 양씨가 택한 남편 죽이기 방법은 바로 쇠못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두 아내는 교묘하게도 머리카락이 덮여 있는 뒤통수에서 쇠못을 박아 콧구멍 안쪽까지 밀어 넣었던 것이다. 상당히 잔인하고 대담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이 꿈꾼 완전범죄는 명탐정 포공의 예리한 시선과 관찰, 추리를 피하지 못하고 발각되기에 이르렀다.

황우 원년 정월 십오일, 상원절이 되었다. 포공은 서리들은 이끌고 성황묘에 가서 향을 피워 기도를 올렸다. 돌아오며 백탑전 골목어귀를 지나다가 여인의 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곡소리가 슬픈 듯 하면서도 기쁨이 배어나왔고, 애통한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포공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관부로 돌아와 당직을 서는 아역 정강을 불러서 물었다. “막 백탑전 골목어귀를 지나오다가 한 여인의 곡소리를 들었는데 무엇 때문인가?” 정강이 아뢰었다. “謝家村 골목어귀에 살던 유십이가 일전에 죽었는데, 그의 아내 오씨가 집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포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의 죽음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혹시 오씨가 남편을 죽인 것은 아닐까? 어찌 곡소리가 슬픈 듯하면서도 기쁨이 배어나왔던 것일까?” 곧 아역을 파견하여 오씨를 불러오도록 했다. 남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묻자 오씨가 대답했다. “제 남편 유십이는 채소를 팔아 생계를 꾸려 왔는데, 전 달에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문 밖 오리패에 묻었지요. 지금 집에는 어린 자식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슬피 울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포공은 여인의 얼굴에 화장기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생각했다. ‘상

21) 陳尚歸家憂悶，雙眉不展，臉帶愁容。其妻阿楊問：“你有何事憂悶？”尚具以此事告知。阿楊言：“曾驗死人鼻中否？”尚云：“此人原是我收殮，鼻中不曾看。”阿楊道：“聞有人曾將鐵釘插入人鼻中，壞了人性命。何不勸視此處？”尚亦疑惑，即依其妻所言再去看驗一次，劉十二鼻中果有鐵釘二個，從後腦髮中插入。遂取釘歸呈待制道知。包公便將阿吳跟勘。阿吳初不肯招，及上起刑具，阿吳只得招認爲因與張屠通姦，恐丈夫知覺，不合謀害身死情由。

을 입은 사람이 어찌 저리도 단장을 했던 말인가?'²²⁾ 76회

막 관부를 나서려는데 포공이 아역을 시켜 양씨를 불러오게 하여 물어보았다. “그대와 진상은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 양씨가 대답했다. “전남편이 죽어서 진상과 재혼을 했습니다.” 포증이 물었다. “전남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양씨가 답했다. “성은 매이고 이름은 소구이옵니다.” 다시 포증이 물었다.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양씨는 포증이 단호하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전남편은 정신이상으로 병들어 죽어서 남문 밖 난장강에 묻혔습니다.” 포공이 말했다. “알고 보니 그대 전남편의 죽음에도 의심 가는 점이 있다.” 곧 왕랑을 파견하여 양씨를 데리고 무덤에 가서 매소구의 시신을 살펴보도록 했다.²³⁾ 77회

포공은 길을 가다 듣게 된 여인의 곡소리에 슬픔이 깃들어있지 않아 의심을 품고 사건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여인을 심문하면서 상을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얼굴모습과 몸치장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지했다. 자신의 위도사실이 발각날 것을 우려한 오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남편 죽이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완전범죄를 자신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남편을 죽인 양씨의 등장으로 완전범죄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양씨 역시 과거 자신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다.

22) 皇佑元年正月十五, 乃上元令節, 包公同胥吏去城隍廟行香畢, 回到白塔前巷口經過, 聞有婦人哭丈夫聲, 其聲半悲半喜, 並無哀痛之情. 拯記在心, 回衙即喚過值堂公差鄭強問云: “適來白塔前巷口有一婦人哭着甚人?” 強告云: “是謝家巷口劉十二日前死了, 他妻阿吳在家啼哭.” 拯思之: “這人死定是死得不明, 莫是阿吳害了丈夫性命, 如何哭聲半悲半喜?” 便差人去喚阿吳來, 問其夫因何身死? 阿吳供道: “妾身夫主劉十二以販賣菜爲生, 於前月因氣疾身死, 埋在南門外五里牌後, 今家有小兒子全無倚賴, 以此悲哭.” 包公聽罷, 看那婦人臉上似此脂粉之色, 因思: “彼守服如何好整飾?”

23) 才方出衙, 包公即令人喚回阿楊來問云: “當初陳尙與你是結髮夫妻? 是半路夫妻?” 阿楊覆道: “妾身前夫早亡, 再嫁與陳尙爲妻.” 拯問曰: “前夫姓甚名誰?” 答道: “姓梅, 名小丸.” 拯云: “得何疾身死?” 阿楊見包公問得情切, 不覺失了色, 乃勉強對云: “他染癩癩得病而死, 埋在南門外亂葬崗上.” 包公道: “原來你前夫也身死不明.” 便差王亮押阿楊同去墳所檢驗梅小丸屍骨.

4. 나오며

감히 사회범죄소설집이라 칭하는 《백가공안》에는 일그러진 욕망 분출로 인한 사회범죄가 전개 되고 있다. 특히 아내의 '남편 죽이기 욕망'은 충격적인 내용이며, 어느 정도 당시 사회와 성적으로 억압받던 여성의 심리를 반영하는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아내의 '남편 죽이기 욕망'의 범주에는 실제 살해 행위 외에 남편을 가정적·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중국 역사와 고전소설 속에서 남편의 '아내 죽이기 욕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내의 '남편 죽이기 욕망'은 곳곳에 보여진다. 《백가공안》제76회의 오씨와 제77회의 양씨는 자신들의 외도를 감추기 위해 '남편 죽이기'라는 '일그러진 욕망'을 품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녀들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남성들에게만 외도가 용인되던 시대에 여성들의 외도는 꿈꾸어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금기조항이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쇠뿔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완전범죄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바램과는 달리 서구식 탐정 포증의 등장으로 사건의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러한 일그러진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표출됨으로써 당시 음울하고 어두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거 역사와 문학 속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회에서도 '남편 죽이기 욕망'과 '아내 죽이기 욕망'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 예로, 2008년 11월3일에서 2009년 5월1일 까지 TV를 통해 방송된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과 2009년 10월 12일부터 방영 중인 SBS 월화 드라마 <천사의 유혹>을 들 수 있다. <아내의 유혹>에는 '아내 죽이기 욕망'과 '남편 죽이기(복수) 욕망'이 공존하며, '아내 죽이기 욕망'이 '남편 죽이기 욕망'을 초래하고 있다. <천사의 유혹>은 <아내의 유혹>의 후속작으로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한 한 여성의 '남편 죽이기 욕망'이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다시 '아내죽이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두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들의 '남편 죽이기 욕망'은

더 이상 중국공안소설에 보여지는 외도은폐의 단순한 목적이 아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혼과 외도는 예전에 비해 지나친 매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여성들은 자신들을 옹아매던 사회적 인식과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인해, 성적 욕망으로 인한 외도행위를 은폐하기위해서 '남편 죽이기 욕망'을 품고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이다. 《백가공안》을 위시한 사회범죄소설집에는 이러한 '일그러진 욕망'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그 사회의 리얼리티적 측면을 과감히 제시하고 있다.

《參考文獻》

- 《百家公案》, 北京: 群衆出版社, 1999.
《胡適文存》三集, <三俠五義序>, 上海書店, 1930, 영인본: 한국학술정보센터, 1994.
黃岩柏, 《中國公案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1991.
남경태, 《개념어사전》, 들녘, 2008.
에르네스트 만델 지음, 이동연 옮김,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왕번강 지음, 구서인 옮김, 《여인들의 중국사》, 김영사, 2008.
이중텐 지음, 박경숙 옮김, 《이중텐, 중국인을 말하다》, 은행나무, 2008.
易中天 지음, 홍광훈 옮김, 《이중텐 교수의 중국 남녀 엿보기》, 에버리치홀딩스, 2008.

《中文提要》

小說的主要主題中一就是'慾望'.

中國公案小說描寫了以人間慾望的噴出引起的案件.

最早的短篇公案小說專集《百家公案》詳細敘述了現實社會中發生的形形色色的犯罪和案件解決.

《百家公案》就是社會犯罪小說集.

因人間的'變態的慾望'發生了各式各樣的社會犯罪, 爲了解決犯罪案件, 中國式偵探'包公'在作品中間站着.

爲了解決犯罪案件, 包公熱情地孤軍奮戰了.

通常, 因人間的執着的慾望發生了犯罪. 人間的變態的慾望打擊了社會基本秩序和和平.
《百家公案》裏開展了因人間的'變態的慾望'發生的社會犯罪, 為解決犯罪案件的衙門介入.
在《百家公案》表現的五光十色的變態的慾望中, 有着'謀殺丈夫的慾望'的妻子和她們的完全
犯罪非常殘酷.

古代女性為了隱蔽性慾望的外遇行為, 有着'謀殺丈夫的慾望'和完全犯罪的癡心妄想.
特別是妻子的'謀殺丈夫的慾望'非常衝擊的內容, 表現了傳統社會中女性的心理和現實主義.

關鍵詞 : 《백가공안》, 공안소설, 남편 죽이기 욕망, 포공, 탐정, 사회범죄, 완전범죄, 외도,
리얼리티

이 논문은 2009년 11월 04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